

티포탯과 아홉 번의 올림픽:

바다를 건너 만난 스웨덴의

요람과 기회의 사다리

최 연 혁*

본 연구는 스웨덴에서 38년간 유학생 시절부터 교수 재직 기간까지 보낸 비교정치학자의 자전적 체험을 통해 스웨덴 모델의 본질과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초기 언어훈련과정부터 학사 및 박사 학위논문 작업, 그리고 박사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학문적 여정을 가능하게 만든 교육제도 속에서 스웨덴 모델의 진면목을 살펴본다. 스웨덴에서 교육은 나이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복지정책이자 기회의 사다리이며, 국가가 차별 없이 단행하는 과감한 인재투자와 단계별 학생 지원의 결과물이다. 아울러 스웨덴 사회의 낮은 부패율과 노사 간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로버트 액설로드의 티포탯(Tit-for-Tat) 이론의 핵심 요소로 실증하며, 최근의 복지국가 위기 속에서도 상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위기 극복의 근본적 추동력임을 제시한다.

주제어: 기회의 사다리, 무상교육, 스웨덴 모델, 인재투자, 티포탯

*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1. 프롤로그

1988년, 온 나라가 서울 올림픽의 광파르로 들썩이던 그해 가을. 나는 사람들의 열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짐을 꾸리고 있었다. 목적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 7,000km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나라, 스웨덴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내게 스웨덴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미지의 동화 같은 곳이었다. 그 막연한 동경의 시작점은 1970년대 어느 날,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야 간신히 화면이 나오던 흑백 텔레비전 앞이었다. 가끔 중계되던 런던 월드컵 테니스 대회에서, 구레나룻과 턱수염을 기르고 양쪽 귀까지 덮은 긴 금발 머리를 하얀 헤어밴드로 질끈 묶은 채 코트를 누비던 선수가 있었다. 테니스의 룰조차 제대로 모르던 평범한 고등학생의 눈에도 그의 플레이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나중에야 그가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인 테니스 스타 뵈른 보리(Björn Borg)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내 인생의 첫 아이돌이 되었다.

세계적인 스웨덴 그룹 아바. 그들의 명곡 ‘I Have a Dream’의 노랫말은 밤마다 내 귓가를 맴돌았다.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노래 가사처럼 나는 천사를 믿었고, 내게 맞는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나는 꿈을 찾기 위해, 아바의 노래처럼 기꺼이 바다를 건너 스웨덴이라는 낯선 물결에 내 젊음을 던졌다.

2. 프렌스타(Fränsta)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만난 ‘국민의 집’

스웨덴 땅에 첫발을 내디딘 후, 스웨덴연구재단(Svenska institutet)의 문화

장학금을 받아 내가 배치된 곳은 올스타 폴크웁스콜라라는 이름의 작은 학교였다. 쏘스발에서 내륙을 향해 오레(Åre) 쪽으로 130km를 굽이굽이 달려야 나오는 프렌스타(Fränsta). 인구 500명도 채 되지 않는 고요하고 적막한 산골 마을이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배정된 곳이었지만, 그곳은 스웨덴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첫 관문이었다.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그 낮선 풍경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스웨덴어와 사회문화를 배우기 위해 모인 20여 명의 성인반 학생들 중, 까만 머리의 이방인은 나 혼자뿐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면면이었다. 20대 청년부터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인 58세의 아주머니까지, 여성이 주류를 이룬 그 교실의 연령대는 참으로 다양했다.

그들은 왜 이 나이에 다시 책상 앞에 앉았을까? 대화를 나누며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어린 시절 가난이나 질병, 혹은 저마다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일종의 검정고시 과정과도 같은 이 학교에서, 그들은 뒤늦게 대학 진학이나 새로운 직업을 꿈꾸며 다시 펜을 쥐고 있었다. 도자기와 그래픽 예술에 특화된 이 학교를 거쳐 예술대학(Konstfack)에 진학해 늦깎이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된 동기들도 훗날 여럿 볼 수 있었다.

스웨덴 학생들에게 이 모든 학비는 100% 무상이었다. 게다가 당시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학생 자격을 획득하면 국가로부터 학비보조금(CSN)까지 지원 받아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이미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온 내게, 이 산골짜기 교실에서 목격한 풍경은 스웨덴식 사회복지 모델의 진면목을 뱉속 깊이 새겨주었다.

스웨덴에서 교육이란 단순히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의 트랙이 아니었다. 누구나 나이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 다시 그 ‘다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사회적 요람이었다. 교육이 곧 복지라는 사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묵직한 진실을 나는 그 작은 마을 오레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3. 미시간의 화려한 스포츠키와 스웨덴의 기회사다리

폴크헝스콜라에서의 꿈같던 반년을 뒤로하고, 나는 스톡홀름 대학에 진학하여 다시 정치학 학사 논문을 써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다. 처음 스웨덴어로 정치학 방법론을 수강하며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사전을 수천 번 뒤적이며 2년 만에 간신히 학사 논문을 통과시켰고, 한국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덕분에 중간 과정인 필리스(Fil.Lic.)를 건너뛰고 곧바로 박사과정(Forskarutbildning)이라는 새로운 사다리에 발을 올릴 수 있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박사과정 두 번째 학기, 통계학 교수님은 스웨덴 장학금으로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여름 고급통계과정(ICPSR)에 다녀올 수 있다는 안내를 해주었다. 체류비와 여행비는 물론 비싼 미국의 학비까지 전부 지원된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신청서를 냈는데, 거짓말처럼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렇게 나는 박사과정 두 학기를 마치자마자 여름 2개월 동안 앤아버(Ann Arbor)의 교정에서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비교정치학자로서의 안목을 넓히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시간에서의 두 달은 내게 강렬한 이질감을 안겨주었다. 스톡홀름과 예테보리에서 도합 5년을 스웨덴 사람처럼 살아온 내게 미국 사회는 너무나 달랐다. 저녁 6시만 되면 버스가 끊겨 칙칙 같은 밤길을 몇 킬로미터나 더덜터덜 걸어야 했던 일화는 그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했다.

가장 큰 충격은 대학 캠퍼스 구석구석에 주차된 화려한 스포츠키들이었다. 처음엔 당연히 나이 지긋한 교수들의 차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나자마자 백팩을 멘 미국 학부생들이 손을 흔들며 스포츠키에 올라타 웅장한 엔진 배기음을 내뿜으며 사라지는 모습은, 스웨덴의 소박한 평등주의에 익숙해져 있던 내 눈에 지독한 부의 격차로 다가왔다.

스웨덴에서는 폴크헝스콜라부터 대학, 대학원은 물론 외국의 여름 고급과정까지 국가의 장학금으로 무상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미국에서 중부의 명문대인 미시간 대학에 다니려면 부모가 넉넉한 중산층 이상이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었다. 기회의 사다리 자체가 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미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오히려 스웨덴의 무상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4. 낯선 이방인을 품은 연구의 여정

나를 향한 스웨덴의 ‘무상 시리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세계 각국의 선거법과 헌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기에, 방대한 국제 데이터가 필수적이었다. 나는 스위스 제네바의 IPU(Inter-Parliamentary Union) 자료실과 미국 워싱턴의 IFES 선거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찾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 직접 먼지를 마시며 문서를 복사해야만 했던 1994년, 나는 제네바 1주일과 워싱턴 1주일이라는 출장 기획안을 작성했다. 항공료와 체류비, 복사비를 합치면 600만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조심스럽게 학과장에게 기획안을 내밀었을 때, 놀랍게도 단번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스웨덴의 대학은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면 박사과정 학생의 출장비도 박사연구자 연구기금을 통해 아낌없이 지급하고 있었다. 그렇게 2주간 스위스와 미국을 누비며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는 내 논문의 가장 든든한 뼈대가 되었다.

논문 탈고를 눈앞에 둔 1996년 가을,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250페이지가 넘는 영문 논문의 최종 교정을 봐주던 미국 워싱턴 대학 출신의 유학생이 갑자기 시애틀로 귀국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이메일로 원고를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절, 마지막 교정만 마치면 당장 출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과에 ‘교정 작업을 위해 시애틀 1주일 체류가 필요하다’고 SOS를 쳤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또 한 번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논문을 1년 남기고 박사연구원(Doktorandtjänst)으로 정식 봉급을 받고 있던 나에게 연구기금이 배당된 것이다. 나는 스웨덴 학과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태평양을 건너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 도서관에서 논

문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97년 봄, 학위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고, 추천서를 선뜻 써준 교수의 도움으로 쇠데르틴(Södertörn) 대학에 첫 교편을 잡는 기쁨까지 누렸다. 취업의 기쁨을 안고 6월에 짐을 싸던 중 학과장의 호출을 받았다. 그저 덕담이나 나누려나 보다 하고 찾아간 자리에서, 학과장은 내게 1년짜리 영국 LSE(런던정경대) 박사후과정 장학금을 제안했다. 박사 배출 시 교육부에서 학과로 나오는 3억 원가량의 지원금 중 일부를,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래를 위해 흔쾌히 떼어준 것이다. 폴크웁스콜라에서 시작된 한 이방인의 기나긴 여정은 스웨덴이라는 국가의 숭고하고도 거대한 신뢰의 그물망 안에서 단 한 번의 추락 없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

5. 스웨덴 모델의 뿌리를 찾아서 - 티포탯과 살트세바덴

1997년, 비교정치학 교수로서 본격적인 연구 인생의 닳을 올린 나의 화두는 명확했다. “스웨덴은 왜 부패하지 않으며, 왜 사회적 갈등이 이토록 낮은가?” 당시 스웨덴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7년 발표한 부패채감지수(CPI)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극도로 청렴했으며, 노동손실 일수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를 신뢰하고, 노사가 파업 없이 타협하는 이기적 같은 사회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로버트 액셀로드(Robert Axelrod)의 저서 『협력의 진화(Evolution of Cooperation)』 속에 숨어 있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상대를 믿고 먼저 협력의 손을 내미는 티포탯(Tit-for-Tat) 전략이라는 이론이었다. 한 번 굳건하게 형성된 상호 신뢰와 협력의 구조는 그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는다.

이 이론을 들고 스웨덴의 정치사와 노동운동사를 살살이 파헤치기 시작했

다. 스웨덴의 노사 관계가 처음부터 평화로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1931년 오달렌(Ådalen)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 군대가 발포하는 끔찍한 유혈 비극이 일어날 정도로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집권 사민당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없이는 경제성장도, 일자리도, 복지를 위한 세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결국 1938년, 노사는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내며 역사적인 살트셰바덴(Saltsjöbaden)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단순한 노사 간의 휴전을 넘어, 스웨덴 사회 전체에 ‘티포택’의 신뢰가 작동하게 만든 거대한 분수령이었다.

그보다 앞선 1928년, 사민당 당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은 국민의 집(Folkhemmet) 연설을 통해 스웨덴의 청사진을 그렸다. 국가는 단순히 치안을 유지하는 야경국가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와 무상교육, 의료라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따뜻한 집이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1950년대에는 노동조합 연구원이었던 렌과 마이드너가 제안한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연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른바 귀족노조의 탄생을 막으며 노노(勞勞) 갈등까지 봉합하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다.

6. 장미의 전쟁과 빛진 자의 슬픔 - 흔들리는 복지국가

하지만 견고해 보이던 스웨덴의 요람도 1970년대 이후 불어닥친 거대한 역사의 파고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큰 위기는 사민당 내 강성 좌파가 밀어붙인 임노동기금(Löntagarfond) 제도의 도입이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주식 형태로 노동자 기금에 귀속시킨다는 이 급진적인 정책은 자본가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고, 급기야 스웨덴의 자랑인 이케아(IKEA)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규모 ‘엑소더스’를 촉발했다.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이 떠나자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복지를 지탱할 세수가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 들어선 온건 좌파 정부의 잉바르 칼손 총리는 부랴부랴 기업가 연맹(SAF)과 타협해 임노동기금을 폐지하고 알파 라발(Alfa Laval), H&M 등 일부 기업의 발길을 돌렸으나, 한 번 짐을 싣 이케아는 끝내 네덜란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내부의 갈등도 뼈아팠다. 1980년대 중반, 팔메 총리 시절의 재무장관이었던 온건 좌파 쉐-올로프 펠트(Kjell-Olof Feldt)는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자본 자유화를 주장했다. 반면 스틱 말름(Stig Malm)이 이끄는 강성 노조(LO)는 이에 극렬히 반대했다. 펠트의 승리로 끝난 이 치열한 내부 투쟁을 스웨덴 역사에서는 ‘장미의 전쟁(Rosornas krig)’이라 부른다. 펠트는 훗날 자신의 자서전 『그 모든 날들(Alla dessa dagar)』에서 노조가 장악하려 했던 임노동기금을 이렇게 신랄하게 꼬집었다.

“임노동기금은 보통 성가신 게 아니야. 그래도 지금까지 잘 처리해 왔어. 그리고 나면 임노동 기금 관리를 위한 요직은 지지했던 노조 간부들이 다 차지하겠지. 기금이 더 늘어나면 앞으로 더 싸울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펠트가 주도한 자본 자유화는 거품 경제를 낳았고, 이는 1991년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뱅크런 사태로 이어졌다. 은행이 파산해도 국가가 예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소문에, 나 역시 얼마 되지 않는 유학생의 생활비를 건지기 위해 추운 겨울 은행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길게 줄을 서야만 했다.

실업률은 순식간에 15퍼센트까지 치솟았고, 빈부격차는 벌어졌으며, 세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1994년 정권을 되찾은 사민당의 예란 페르손(Göran Persson) 재무장관은 자신의 저서 제목처럼 “빚진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Den som är satt i skuld är icke fri)”라는 뼈아픈 선언과 함께 복지 축소를 발표했다. 스웨덴은 그 때까지 마이너스 재정으로 복지제도를 지탱하고 있었다. 95퍼센트에 달하던 실업급여 임금 보전율은 70퍼센트로 곤두박질쳤고, 실직자를 적극적으로 재교육해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던 국가의 든든한 ‘적극적 노동정책’이라는 밋줄도 낡아 끊어지기 시작했다.

7. 에필로그

시간은 쉼 없이 흘러 어느덧 2000년대를 지나 2016년 이후 우파의 연속 집권기를 거쳤다. 한때 공공의 영역이었던 철도, 우체국, 약국, 병원, 그리고 학교까지 거센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시장의 경쟁 논리로 내몰렸다. 내가 처음 스웨덴에 왔을 때 감탄해 마지않았던 그 완벽한 무상의 의료복지는 옛말이 되어, 이제는 응급실에서 8시간을 대기하고 일반 병동 진료를 받기 위해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급격히 유입된 정치 난민들로 인한 부작용은 폭탄 테러와 방화, 경찰을 향한 갱단의 폭력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복지국가로 자부하던 스웨덴의 명성은 짙은 안개 속으로 퇴색되어 버린 듯하다.

하지만 나는 단언컨대 스웨덴의 모델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병원의 대기줄은 길어지고 거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험악해졌을지언정, 실패한 자가 언제든 다시 딛고 올라설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의 사다리는 여전히 이 사회의 척추처럼 굳건히 작동하고 있다. 정치적 폭풍우와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서도, 로버트 액셀로드가 말했던 티포탯의 상호 신뢰와 협력의 근본 구조만은 아직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 스웨덴이 지금 직면한 술한 난관들을 언젠가 보란 듯이 돌파해 낼 것이라는 나의 믿음이자 희망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환호성을 등지고 이 낯선 땅에 발을 디딘 후, 나는 스웨덴에서만 무려 아홉 번의 올림픽을 맞이했다. 바다 건너 7,000km를 날아온 이방인의 유학부터 교수 시절까지의 기나긴 여정도 이제 그 서서히 끝을 맺어가는 시점에 다다랐다.

조용히 캠퍼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38년 전 칼라 텔레비전 앞에서 들었던 아바(ABBA)의 ‘I Have a Dream’의 1절을 다시 꺼내 흥얼거린다.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www.kci.go.kr

그래,

설령 실패하더라도 기꺼이 내일의 미래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이
담대한 가사야말로 스웨덴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어떤 험난한 파도가 몰아쳐도 서로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한, 스
웨덴이라는 숲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마치 젊은 날의 나를 품어
주었던 프렌스타(Fränsta)의 그 따뜻했던 교실처럼 말이다.

《참고문헌》

로버트 액셀로드 (2024). 협력의 진화: 이기적 개인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 틔포틔 전략 (이경식 옮김). 마루벌.

Axelrod, R.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Basic Books.

Feldt, K.-O. (1992). Alla dessa dagar: I regeringen 1982-1990. Stockholm: Norstedts.

Lindgren Åsbrink, M. (Ed.). (2019). Kan(s)lihushögern: Frälsare eller dödgrävare? Tankesmedjan Tiden.

Malm, S. (1994). 13 år. Stockholm: Brevskolan.

<Abstract>

Tit-for-Tat and Nine Olympics:

The cradle and ladder of opportunity in the Swedish model through a political scientist's journey

Choe, Yonhyok*

This study explores the essence and transformation of the Swedish model through the autoethnographic reflections of a comparative political scientist who spent thirty-eight years in Sweden as a student and professor. By examin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facilitated an immigrant scholar's academic journey—spanning from initial language training and intensive thesis writing to a postdoctoral fellowship—this paper uncovers the core values embedded in the Swedish system. In Sweden, education serves as an exceptionally efficient welfare policy and a ladder of opportunity, characterized by comprehensive step-by-step student support and egalitarian investment in human capital. Furthermore, the nation's low corruption rates and institutionalized social compromise are explained through the critical elements of the Tit-for-Tat theory, illustrating that deep-seated social trust remains the resilient structural foundation for navigating contemporary welfare crises.

Key Words: Human capital investment, Ladder of opportunity, Social trust, Swedish model, Tit-for-Tat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Linnaeus University

성명: 최연혁

소속: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Linnaeus University

E-mail: yonhyok.choe@lnu.se, shykce@gamil.com

www.kci.go.kr